

古下 송진우 선생 탄신 131주년 추모식 엄수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1주년 추모식에서 유족 대표인 송진우 선생 장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헌화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

고하 송진우(古下 宋鎭禹·1890~1945) 선생 탄신 131주년 추모식이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서 5월 7일 엄수됐다.

이날 추모식은 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동아일보사가 후원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은 1921년 인촌 김성수 선생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

3대 사장에 취임.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될때까지 사장, 고문, 주필 등을 지냈으며, 동아일보가 복간된 후 다시 제8대 사장에 취임했다. 1945년 12월 30일 한현우 등 6명의 습격을 받고 서울 종로구 원서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1963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동우회에서는 조강한 명예회장과 정구중 회장 등이 참석했다.